

NO. 1

현재 전 세계는 기후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
 습니다.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기온이 1도 높
 아질 때마다 물가가 3%포인트씩 증가한다고 설
 명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기후 인플레이션
 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
 까요? 현재 우리나라 양배추의 가격은 이번년도
 들어 160% 증가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.
 하지만 문제는 물가 상승 뿐만이 아닙니다. 한
 보고서에서는 2080년에는 대한민국의 사과 생산지
 가 거의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고하기도 하
 였습니다. 또한 이러한 물가 상승은 신선식품에
 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. 실제로 전세계의 인
 스텐트 커피의 주재료를 대부분 수출하는 한 기
 업에서는 기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재료 가격
 을 60% 상승시켰으며, 이는 한국의 저가커피
 전문점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이러한 신선식품의 생산 가능 지역 감소, 물가
 상승과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
 직접적 가격 증가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큰 영
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렇다면 현재
 한국 정부는 어떻게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
 할까요? 저는 총 2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
 합니다. 1 번째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지원을
 해 주는 것입니다. 현재 신선식품의 급등하는
 가격은 대부분 이상기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
 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영향을 받지
 않는 스마트팜은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직
 접적이고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 하
 지만 현재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급등하는 에너지
 가격 때문에 운영비용이 상승하여 경제성을 확보
 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활발해져
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기후 인플레이션에 영
 향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기후 인플레이션에
 대응하는 직접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
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에너지를 활
 용하여 식물을 키운다는 스마트팜의 근본적인 아
 이디어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를 막는다는
 취지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안하
 는 2 번째 방법은 ‘기후변화는 식품을 더 비싸
 게 만든다’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

[illegible]A watercolor illustration of a young girl with dark hair, wearing a red dress and a white collar, looking down with a sad expression. The background is a soft, light blue and white wash.